지금
바가 오지 않는 것은
고려장의 뚜눈한
방비슨.
상의 명을
잡아서입니다!
규보님, 보아지 백성은
다 이실 거다실 수
없소.
하지만, 자금
까지 오고 안했나니.

한국사 바로 알기